

“난 ML 톱클래스들과 상대하는 게 더 편했다”

ML 2년차 오승환의 아메리칸드림

TV로만 봐온 선수들과 대결…빅리거 실감
몰리나는 역시 좋은 포수…난 복 받은 투수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무적 상태에서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1년 전으로 시계를 돌이켜보자. 무적 상태에 KBO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정계까지 받았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돌이켜보면 정말 전부 다 힘들었다. 그래도 운동을 관둔다는 생각은 안했다. 대표님과 미국(팜)에 가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대표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지.”
-세인트루이스의 제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모두가 팀 이름을 들었을 때 놀랐다. “나도 의아했다. 누구나 다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워낙 불펜이 좋았고, 협상 과정에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팀이었다. 나 역시 많이 놀랐다.(웃음)”
-한국과 일본을 거쳤지만, 미국은 또 다르다. 팀에 처음 갔을 때 많이 낯설지 않았다. “팀 동료들이나 클럽하우스에서 일하는 친구들, 코칭스태프들도 그렇고 정말 다 편하게 해줬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동료들과 잘 지냈다. 마이크 매서니 감독 같은 경우엔 캠프 때부터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서 해온 것처럼 ‘네 컨디션에 맞춰서 해라’고 애길 해줬다. 덕분에 오버페이스하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었다.”
-올해 메이저리그 루키로서 자리를 잡는 과정

이 KBO리그 신인 시절이던 2005년과 매우 비슷했다.
“그런 생각은 몇 번 했었다. 그렇지만 크게 와닿거나 그런 건 없었다. 사실 난 올 시즌에 성적이나 다른 목표를 갖기보다는, 하루하루 공 1개, 1개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없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웃음)”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메이저리그
-처음 빅리거들과 함께 땀 땀 어떤 기분이 들었나.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할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된 뒤 한국이나 일본에서 TV로만 봐온 선수들과 맞닥뜨렸을 때 ‘정말 메이저리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돌부처’라지만, 그런 선수들과 직접 상대했을 때 떨리진 않나.
“처음엔 당연히 있다. 다 처음 보는 선수들 아닌가. 또 한국과 일본에선 외국인선수 1~2명과 상대하는데 여긴 다 덩치 큰 선수들이다. 그러나 오히려 마운드에서 대단한 선수들과 상대하는 게 편하고 좋았다.”
-어떤 면에서 좋았나.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날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나. 각 팀의 하위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선수들과 상대하는 게 더 정확한 결과 아닌가. 안타를 맞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특급 선수들을 상대로 잘하면 나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루키가 마무리를 꿰차면서 다른 투수들과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난 항상 감독, 코치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잘하는 모습으로 그 친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캠프 때부터 다른 불펜투수들과 워낙 친하게 지내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다. 시가하거나 시비를 거는 선수들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다녔다. 한국에선 선배가 밥을 사는 문화라고 말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
-세인트루이스라는 팀과도 잘 맞는 것 같다. 아디어 몰리나라는 최고의 포수도 있었다.
“그동안 좋은 포수들과 많이 했다. 투수와 포수는 서로 맞춰가야 하는데 난 어려움이 없었다. 투수 입장에서 정말 복 받은 셈이다. 우리 팀은 분위기가 차분하다. 뛰는 선수들도 없다. 감독님도 위트가 있고, 투수코치(데릭 킬리퀴스트) 같은 경우 8회에 나가게 되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애길 해줬다. 또 난 괜찮다고 하는데 코치가 먼저 ‘8회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있었다.”
-메이저리그 팀의 투수 관리는 어떤가.
“선수의 출전 상태 판단은 전적으로 트레이너의 권한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 트레이너가 상의해서 보고가 올라간다. 혹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보면 3연투 이상 한 적도 없고, 연투를 할 땐 개수가 많지 않았다. 2연투하고도 쉴 때도 많았다.”
-야구장 밖, 타지 생활은 어떤가.
“야구장보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싸워야할 게 더 많다. 그런 부분이 야구까지 연결된다. 일본은 가까우니까 한국이 더 생각나는데, 미국은 아예 머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 경기 끝나면, 밥 먹고 일찍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한다.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선 경기 전에 골프도 치고 하는데 난 큰 취미가 없어 야구장에 나가기 전에 다른 일은 잘 안한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세인트루이스에서 포수 아디어 몰리나(왼쪽)를 만났다. 스스로 “정말 복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베테랑 몰리나는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성공적 데뷔 시즌을 정성껏 도왔다. 사진 | 뉴스1

오승환 “WBC?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겠다”

■태극마크를 향한 오승환의 진심

“아직 명단에 없어 조심스럽지만
대표팀은 뽑히면 당연히 가는 것”

2017년 한국야구는 제4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로 막을 연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1라운드를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한다. 흥행과 성적을 위해서 최정에 전력을 구성해야 하지만, 대표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이 화두에 올랐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오승환을 뽑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을 비롯한 야구인들도 오승환의 대표팀 승선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아직은 오승환의 합류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오승환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선수가 먼저 나서 ‘대표팀에 가겠다’고 말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스포츠동아와 신년 인터뷰에서 “대표팀은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냥 뽑히면 당연히 가는 것이다”면서 “아직 대표팀 명단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최종 엔트리)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니 나로서는 언제든 (대표팀에 발탁되면) 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놓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부동의 국가대표 마무리투수였다. 4강 신화를 쓴 2006년 제1회 WBC를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제2회 WBC 준우승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과 2013년 제3회 WBC까지, 나라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원정도박 스캔들 이후 무적 상태에서 KBO 복귀 조건부 정계까지 받았다.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지만 KBO는 복귀 가능성을 감안해 징계를 내렸고, 일본프로야구 한신과의 계약 만료 이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해오던 오승환은 이후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했다.
한국과 일본을 정복한 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가도를 달렸다. 시즌 중반 마무리로 승

격해 19세이브(77경기 6승3패 14홀드 방어율 1.92)를 올리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마무리로 도약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주도로 열리는 WBC에는 각국의 빅리거들이 출전한다. 대표팀 마운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김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입장에서선 오승환의 합류가 절실하다.
오승환은 이달 초 세인트루이스의 캠프지인 미국 플로리다로 미리 들어가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WBC 출전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닌 만큼 모든 것은 대표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종 엔트리 제출 때(2월 초)까지 대표팀에 승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있겠다는 뜻이다.
오승환은 “그동안 대표팀에 뽑아주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갔고, 태극마크의 무게감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로서 일단 몸과 마음의 준비는 해놓고 있겠다. 시즌에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먼저 미국으로 가서 몸무터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노 기자 nirvana@donga.com

안방서 열리는 WBC, 물갈이 된 KBO리그

베이스볼 브레이크 | 2017년 주목할 일과 달라지는 것들

3월 WBC 국내 개최 야구팬들 기대만발
감독·단장 교체 팀들 새 시즌 결과 주목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KBO리그는 지난해 여러 가지 내외환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국민 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올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작한다. 2017년 주목할 일들과 큰 변화에 대해 짚어본다.

●2월1일 스프링캠프 시작

KBO리그는 올해 2월 1일부터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이는 참가활동기간을 규정한 KB O규약 제69조에 따른 것으로, 10개 구단 모두

적용되는 강제 조항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 15일부터 스프링캠프 단체훈련을 시작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봉이 지급되는 2월 1일부터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는 2월부터 스프링캠프에 돌입하는 것이 이미 정착돼 있지만 KBO리그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 다소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훈련 일수 15일 차이는 훈련 스케줄과 기법 등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수보다 예열을 일찍 시작해야하는 투수들이 문제다. 그러나 어차피 같은 조건이다. 달라진 스프링캠프 환경에 잘 대처하는 것도 능력. 한해 농사의 씨를 뿌리는 스프링캠프부터 올해 순위싸움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3월 WBC

3월에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가 열린다. 고척스카이돔에서 A조(한국, 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1라운드 개최되는데, 6일 한국-이스라엘전이 이번 대회 개막전으로 편성돼 있다. 국내 팬들은 눈앞에서 각국의 현역 메이저리거와 최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한국은 2006년 제1회 대회 4강, 2009년 제2회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르네상스 열었다. 그러나 2013년 제3회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1라운드 탈락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늘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온 한국야구. 이번엔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까.

●3월 31일 KBO리그 개막

3월 WBC가 끝나면 곧바로 프로야구가 시작된다. 올해는 3월 31일 개막전이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평일(금요일) 개막전으로, 잠실(한화-두산), 대구(KIA-삼성), 마산

(롯데-NC), 고척(LG-넥센), 문학(kt-SK) 5개 구장에서 3연전으로 일제히 스타트한다. 올해와 같이 팀간 16차전,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가 열린다. 올스타전은 7월 15일(장소는 미정) 예정돼 있다. kt는 지난해까지 외국인선수 1명 더 쓸 수 있는 신생팀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개 구단 모두 똑 같이 3명씩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새 감독, 새 단장 영입 구단들

올 시즌 감독과 단장이 교체된 구단들이 많아 눈길이 쏠린다. SK는 이번엔 감독과 단장 모두 교체됐다. 우선 외국인 사령탑 트레이 힐만 감독 영입했다. 힐만은 전 롯데 감독 제리로 이스타(2008~2010년)에 이어 KBO리그 역사상 2번째 외국인 사령탑으로, 어떤 색깔의 야구를 선보일지 궁금하다. 또한 연말에는 SK 창단 후 오랫동안 구단의 뼈대와 골격을 만들어온 민경삼 단장이 물러났다. 그의 후임으로 어떤 인물이 들어와 어떤 신념으로 팀을 만들어갈지 지켜볼 만하다. kt 역시 감독과 단장이 모두 바뀌었다. 제2대 감독으로 김진욱 감독을 새롭게 영입했고, 프로농구 kt 단장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 여기에 LG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선수 출신인 송구홍 단장 체제로 출범하고, 한화는 사상 최초로 프로야구 감독 출신인 박종훈 단장을 영입했다. 이들이 현장과 어떤 화음을 낼지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도 신임 홍준학 단장 체제로 새로운 삼성 야구를 어떻게 실현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디오판독센터, 에이전트 도입

올해부터 KBO는 메이저리그식 비디오판독시스템을 가동한다. 지난해까지는 현장의 심판과 감독관 등이 TV 중계화면에만 의존해 합의판정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외부 비디오판독센터(리플레이 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 판독관이 업그레이드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여기에 ‘2루 충돌 방지’ 규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 시즌 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FA 등급제와 에이전트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